

2020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마상진·박시현

요약

2020년에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여 명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90년대 말 IMF 위기 시 한 해 반짝 상승했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년 만인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동향과 관련하여 농림어업계 내외에서 다양한 진단이 있어,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의 특징 및 원인

-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동향의 특징을 보면 계절적 변화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계절 간 취업자 수 변동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6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종사상 지위로 보면 경영주 및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임시근로자, 취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자의 증가가 있었음. 가구형태별로는 농가의 농림어업 분야 취업 증가,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증가 경향이 있었음.
- 인구 요인(생산 가능 인구 변화,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를 분석한 결과,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음.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임금이나 취업기회 등의 격차로 인해 농업에서 비농업 분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이동이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간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연간 변화율을 보면 2017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농림어업과 달리,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서비스업은 2% 이하대 저성장세를 보이다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농림어업 주목 필요

- 대부분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농림어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비대면 산업으로서의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 청년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농림어업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음.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하여 농정 분야 일자리 정책도 일정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더 활발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요구됨. 귀농 및 청년 창업농 지원, 후계자 없는 고령농의 경영 기반 사회적 승계 정책 추진 그리고 창농이 아닌 (법인) 취업 형태의 농업 분야 진출 관련 사업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농업 분야 내 다양한 일자리와 더불어 일거리 창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농업 분야 비전형노동시장의 활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농림어업 분야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도입과 같이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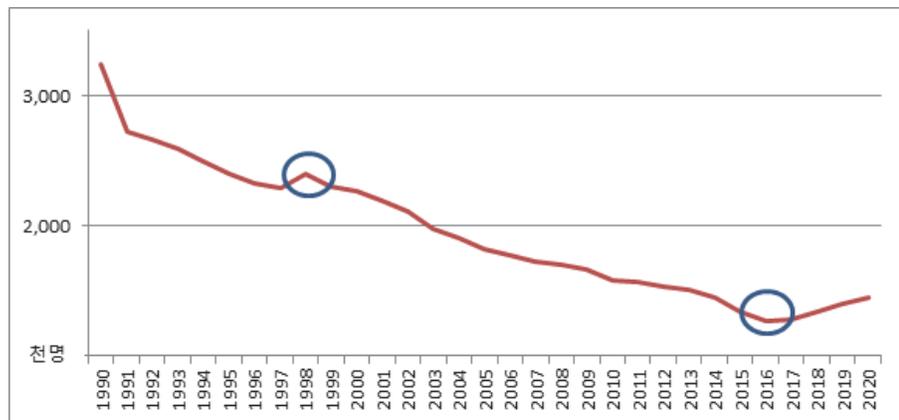
01

2020 농림어업 고용 현황 개요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 대비 5만 명 증가,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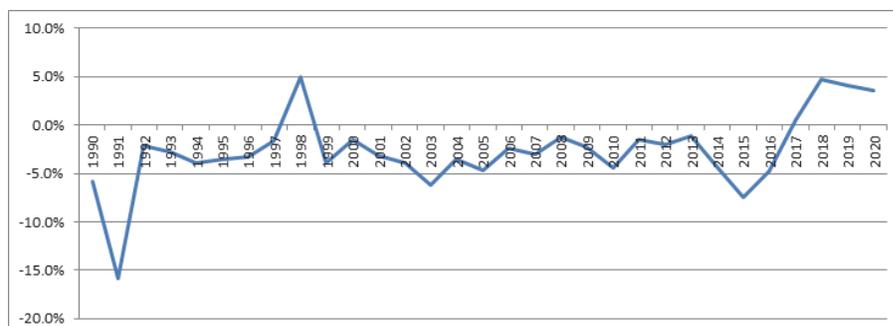
-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 말 IMF 위기 시 한 해 반짝 상승한 이후 20년 넘게 감소하여 왔음. 1990년 300만 명을 넘었으나, 1997년 229만 명에서 1998년 240만 명으로 11만 명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이후 20년간 감소해오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그림 1)〈그림 2〉. 이번에는 한 해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2016년 127만 명이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 128만 명, 2018년 134만 명, 2019년 140만 명 그리고 2020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였음(최근 4년 연평균 4.5만 명 증가).

〈그림 1〉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1990~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전년 대비 변화율): 1990~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 존재, 변화의 면밀한 특성 및 원인 분석 필요

- 최근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와 관련하여 농림어업계 내외에서 다양한 진단을 하고 있음. 농업계 보다는 비농업계의 진단이 비교적 활발한 편인데, 대부분 경기불황에 따른 고령층 중심의 일시적 농업 종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음. 반면, 농업계에서는 농업 분야의 고용 요인 증가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 이러한 진단은 대부분 관련 통계의 일면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및 관련 통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주요 언론기사

- 문화일보. 2018. 8. 20. “고용쇼크 속 농림어업만 취업 ‘6만1000명 폭증’ 미스터리”
- 한국경제. 2019. 2. 20. “실직자 귀농에 농촌 취업자 급증...‘경기 침체 전조일수도’”
- 한국일보. 2019. 4. 21. “농림어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취업자는 왜 증가할까”
- 조선비즈. 2019. 5. 10. “‘농림어업 취업자 급증’의 불편한 진실”
- 농민신문. 2020. 1. 29. “농림어업 취업자 5만5000명 늘었다는데...”
- 뉴스1. 2020. 4. 17. “3월 농어업 취업자수 증가 최대치...60대 이상·무급 늘었을 뿐”
- 국민일보. 2020. 5. 16. “IMF 때처럼... ‘코로나 고용 쇼크’에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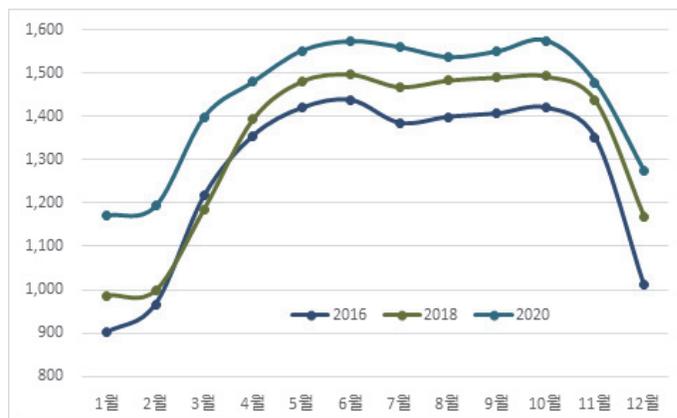
02

최근 농림어업 고용 변화 특징 분석

계절에 관계없이 전반적 증가세, 계절 편차 감소

- 월별 취업자 수 변화 동향을 보면 농작업의 계절성으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농번기(5~6월과 9~10월에 정점)에 증가하고, 농한기(12~2월)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계절적 변동에 관계없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그림 3).
- 또한 계절 간 취업자 수 편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2016년 취업자 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54만 명 수준이던 것이 2020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함.

〈그림 3〉 농림어업 취업자 수 월별 변화 동향: 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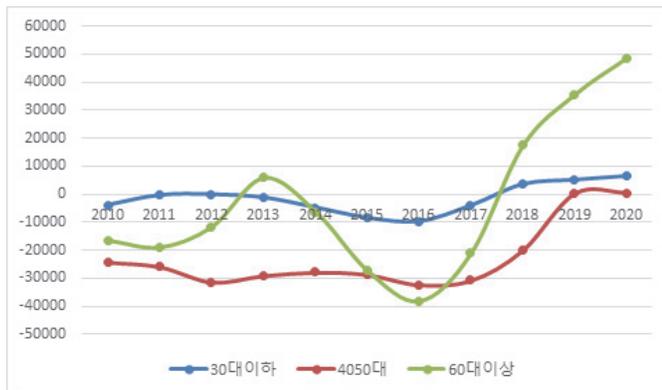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 증가세

- 2020년 기준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보면 30대 이하 9.7만 명(6.7%), 40~50대 39.6만 명(27.4%), 60대 이상 95.2만 명(65.9%)이었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이후 전 연령 세대에서 증가하거나 감소세 둔화가 관찰됨(그림 4).
-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음(3년 이동 평균 기준 2016년 3.8만 명 감소에서 2018년 1.7만 명 증가, 2020년 4.9만 명 증가). 20~30대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2016년 4천명 감소, 2018년 3.5천명 증가, 2020년 6.4천명 증가), 40~50대는 증가세로 전환되지

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감소세가 둔화 또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의 87.6%는 60대 이상 연령층 증가, 11.6%는 30대 이하 연령층 증가에 의한 것이었음.

〈그림 4〉 농림어업 취업자 수 연령대별 전년 대비 변화: 2010~2020년(3년 이동 평균)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영주, 가족 종사자 및 상용·임시 근로자 증가세

- 2020년 기준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보면, 경영주가 91.9만 명(63.6%)(고용 6.0만 명, 무고용 85.9만 명), 임금근로자가 12.6만 명(8.7%)(상용 3.8만 명, 임시 3.9만 명, 일용 4.8만 명), 가족종사자가 40.0만 명(27.7%)이었음. 연도별로 보면, 경영주, 가족종사자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경영주 2016년 4.4만 명 감소, 2018년 1.6천 명 증가, 2020년 3.1만 명 증가), 임금근로자는 유지 상태였음(그림 5).
-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임시근로자는 증가세(2015년 5.9천 명 감소, 2018년 7.6천 명 증가, 2020년 3.9천 명 증가)이고, 일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임. 최근 3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의 55.6%는 경영주 증가, 46.7%는 가족종사자 증가에 의한 것이었음.

〈그림 5〉 농림어업 취업자 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변화: 2010~2020년(3년 이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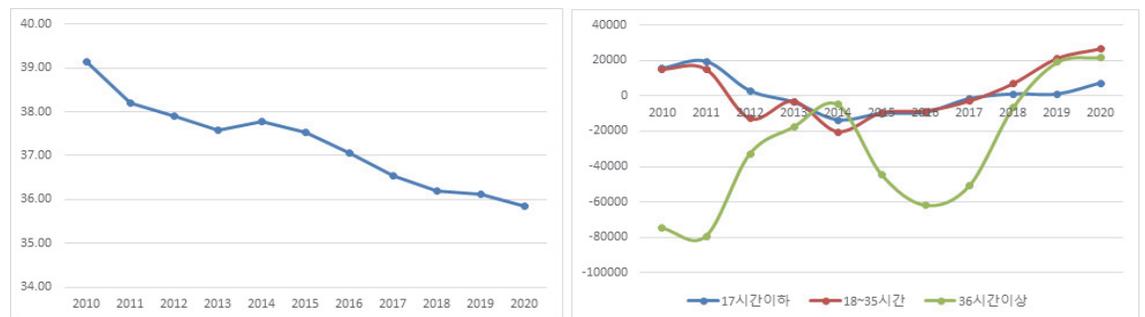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증가세

- 2020년 기준 농림어업 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을 보면, 평균 35.3시간으로 17시간 미만이 17.7만 명(12.2%), 18~35시간이 42.6만 명(29.5%), 36시간 이상이 84.2만 명(58.2%)이었음. 연도별로 보면, 주당 취업시간 17시간 이하 집단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세인 반면, 18시간 이상 집단의 증가가 두드러짐(그림 6).
- 18~35시간 취업자 수는 2016년 8.8천 명 감소에서 2018년 6.7천 명 증가세로 전환된 후, 2020년 2.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016년 6.2만 명 감소, 2018년 6.6천 명 감소에서 2019년 1.9만 명 증가세로 전환된 후, 2020년 2.2만 명 증가하였음.

〈그림 6〉 농림어업 취업자 주당 취업시간 변화 및 취업시간대별 전년 대비 변화: 2010~2020년(3년 이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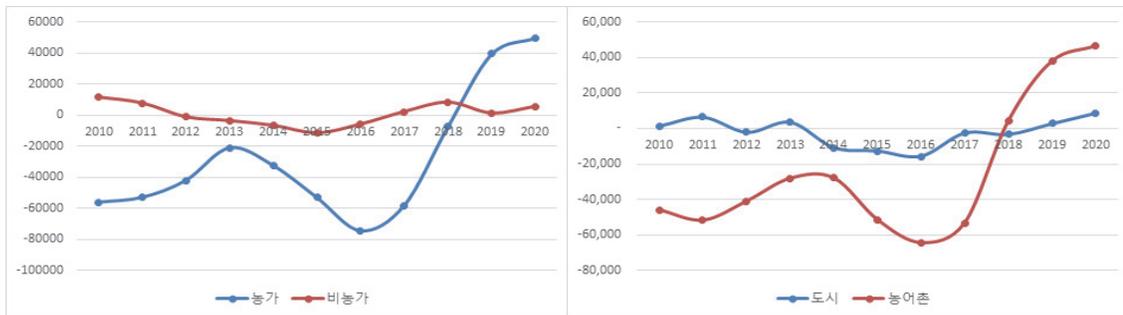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농가, 농촌 출신 취업자 증가세

- 2020년 기준 농림어업 취업자를 가구형태별로 보면, 농가 121.8만 명(84.3%), 비농가 22.7만 명(15.7%)이었음. 연도별 변화를 보면, 비농가는 정체 상태인 반면, 농가 중심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급증하였음(2016년 7.5만 명 감소, 2018년 7.4천 명 감소, 2019년 3.9만 명 증가, 2020년 5.0만 명 증가)(그림 7).
-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농어촌 114만 명(78.9%), 도시 30.5만 명(21.1%)이었는데, 연도별 변화를 보면 도시 출신자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였지만(2016년 1.6만 명 감소, 2018년 3.4천 명 감소, 2019년 2.8천 명 증가, 2020년 8.7천 명 증가), 농어촌 출신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음(2016년 6.4만 명 감소, 2018년 4.3천 명 증가, 2020년 4.7만 명 증가).

〈그림 7〉 농림어업 취업자 가구형태·지역유형별 전년 대비 변화: 2010~2020년(3년 이동 평균)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특징 종합

- 주요 개인 특성별 취업자 변화 동향을 종합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최근으로 갈수록 계절적 변화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계절 간 취업자 변동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음. 종사상 지위로 보면 경영주 및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임시근로자가 증가하고, 취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자의 증가가 있었음. 가구형태별로는 농가의 농림어업 취업 증가,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03

농림어업 고용 변화 원인 분석

인구 감소, 고령화에도 농림어업은 타 산업과 달리 노동 수요 증가

-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주기에, 인구 요인(생산가능 인구 변화,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수요를 분석한 결과,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음.
- 취업자 증감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인구수 및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동 공급 부문과 노동 수요 부문으로 분해(분해 방식은 아래 박스 참조)하여 분석함.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노동 수요(고용률 변화)+노동 공급(인구비중 변화+인구수 변화)

고용 변화 요인 분해 방식

특정 시점 t 의 취업자 수(E_t)는 성·연령대별 취업자($E_{j,t}$)의 합이며, 성·연령대별 취업자는 고용률, 인구비중 및 전체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의 곱임.

$$E_t = \sum_j E_{j,t} = \sum_j er_{j,t} \times p_{j,t} \times p_t$$

- j 는 성별 13개 연령집단(15~20세, ..., 70~74세, 75세 이상)
- er_j 는 성·연령대별 고용률로, 성·연령대별 취업자($E_{j,t}$)를 성·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
- p_j 는 성·연령대별 인구비중으로, 성·연령대별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p)로 나눈 값

두 시점($t > s$) 간 취업자 변화(ΔE_t)는 성·연령대별 고용률(er_j), 성·연령대별 인구비중(p_j) 및 전체 생산가능 인구수(p) 변화로 분해됨.

$$\begin{aligned} \Delta E_t &= E_t - E_s \\ &= \sum_j er_{j,t} p_{j,t} p_t - \sum_j er_{j,s} p_{j,s} p_s \\ &= \sum_j \Delta er_{j,t} p_{j,t} p_t + \sum_j er_{j,s} \Delta p_{j,t} p_t + \sum_j er_{j,s} p_{j,s} \Delta p_t \\ &\quad \text{(고용률 변화)} \quad \text{(인구비중 변화)} \quad \text{(인구수 변화)} \end{aligned}$$

- 성·연령대별 특정 산업의 취업자($E_{i,j,t}$)를 성·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을 성·연령대별 산업 고용률($er_{i,j}$)로 정의하면, 산업(i)별 취업자 증감 분해가 가능

$$\Delta E_{i,t} = \sum_j \Delta er_{i,j,t} p_{j,t} p_t + \sum_j er_{i,j,s} \Delta p_{j,t} p_t + \sum_j er_{i,j,s} p_{j,s} \Delta p_t$$

자료: 정대희·김지운(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전망. KDI경제전망(2017 하반기).

- 산업별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인구 요인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남.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증가(인구 변화)는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인구비중 변화(고령인구 증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농림어업의 경우 노동 공급 측면의 변화, 즉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가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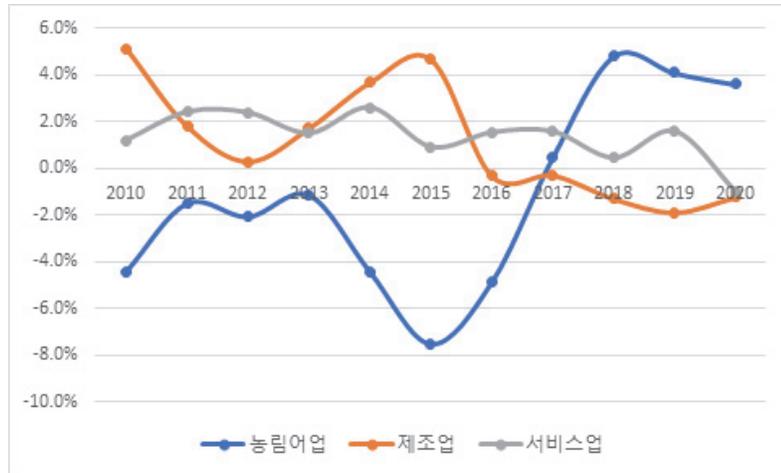
〈표 1〉 주요 산업부문별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2010~2020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노동 수요 고용률 변화	노동 공급 인구 비중 변화	노동 공급 인구수 변화	취업자 증감	노동 수요 고용률 변화	노동 공급 인구 비중 변화	노동 공급 인구수 변화	취업자 증감	노동 수요 고용률 변화	노동 공급 인구 비중 변화	노동 공급 인구수 변화
2010	-73.3	-128.4	33.6	21.5	201.8	181.7	-30.1	50.3	218.3	73.7	-90.8	235.4
2012	-32.2	-87.1	37.2	17.7	14.4	-1.0	-31.7	47.2	448.4	313.8	-78.6	213.2
2014	-67.0	-119.8	35.3	17.6	158.6	133.5	-24.2	49.3	508.9	326.0	-44.0	226.8
2016	-64.9	-111.2	34.9	11.3	-20.8	-22.2	-37.6	39.0	311.7	204.1	-63.8	171.4
2017	6.1	-37.6	34.3	9.5	-17.5	-25.3	-26.3	34.1	323.5	223.5	-52.9	152.9
2018	61.5	18.8	35.4	7.3	-56.3	-62.4	-20.0	26.2	95.7	-2.7	-21.1	119.5
2019	54.7	10.5	34.5	9.8	-80.8	-91.2	-22.4	32.8	331.1	215.5	-36.9	152.5
2020	50.2	2.3	39.1	8.8	-53.2	-54.6	-26.6	28.0	-213.7	-304.3	-44.0	134.6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 수요 요인이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조업 분야의 최근 3년간 노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분야는 2018년, 2020년 감소하였음.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감소세가 두드러졌음. 반면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보인 농림어업의 경우 2018년부터 노동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농림어업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음). 이를 통해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증가는 타 산업 분야의 노동 수요 감소에 따른 전체 취업자 감소를 일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10년간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연간 변화율을 보면, 2017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농림어업과 달리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서비스업은 2% 이하대 저성장세를 보이다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그림 8).

<그림 8> 주요 산업부문별 취업자 연간변화율: 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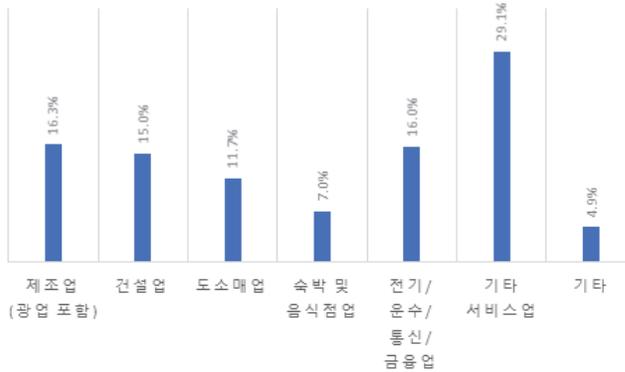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노동이동은 임금이나 취업기회 등의 격차로 인해 농업에서 비농업 분야로, 농촌에서 도시로 발생¹⁾하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양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업 분야 신규 취업자의 과거 경제활동 종사 분야

- 최근 3년 신규 취업(경영주)자의 과거 종사했던 경제활동 분야 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0), 최근 고용이 급감하는 산업 분야의 출신자가 많았음. 최근 신규 취업자의 50%(30대 이하 57.7%, 40대 47.%, 50대 51.6%)가 최근 고용 취약 분야에서 유입됨(제조업 16.3%, 건설업 15.0%, 도소매업 11.7%, 숙박 및 음식점업 7.0%).
- 농업 분야는 최근 고용이 악화되는 산업 분야의 이탈자를 신규 유입시켜 산업 전체의 실업률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함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2017~2019년) 신규 취업자의 과거 경제활동 분야



주: 과거 농업 분야 종사자(6.3%)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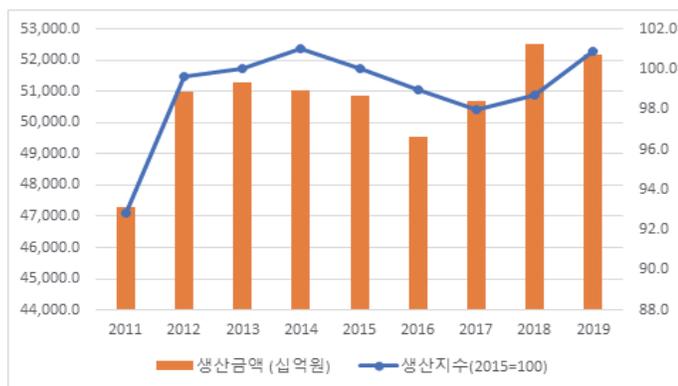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20) 신규 취업자 조사.

1) 전통적으로 노동이동(labor mobility) 이론에서는 노동이동이 왜 발생하는가와 관련하여 크게 임금 격차와 취업 기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봄. 즉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취업 기회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임(김유배 2006).

농림어업 분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기 종사자 증가

- 농림어업 생산액²⁾ 변화를 보면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2016년 49조 5천억 원, 2017년 50조 7천억 원, 2019년 52조 2천억 원), 생산지수³⁾는 2017년 이후 증가(2017년 98에서 2019년 100.9)하고 있음<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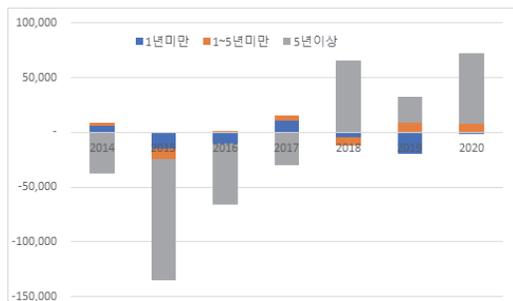
<그림 9> 농림어업 생산액과 생산지수 변화: 2011~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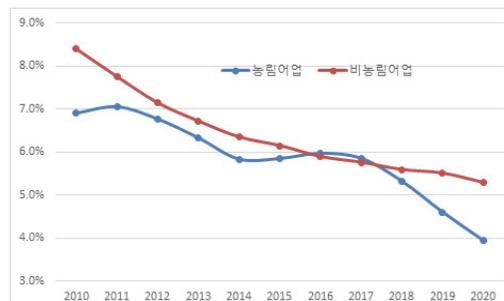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수요 증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노동자와 상용·임시근로자 증가와 더불어, 5년 이상 장기 종사자 증가 추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2018~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 경력별 변화량을 보면, 5년 이상 종사자가 112.3%를 설명하는 반면, 1년 미만자는 -19.3%, 1~4년은 6.9%였음<그림 10>. 이는 이전에는 타 산업으로 이탈했을 인력들이 계속 농림어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임(농림어업 분야 일용직근로자 감소는 전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추세로 농림어업 부문 내부의 요인으로만 볼 수 없음<그림 11>).

<그림 10> 농림어업 취업자 종사기간별 전년 대비 변화



<그림 11>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 분야의 일용직 비율 변화: 2010~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2) 생산액=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3) 기준시점에 대한 품목별 생산수량의 신장율,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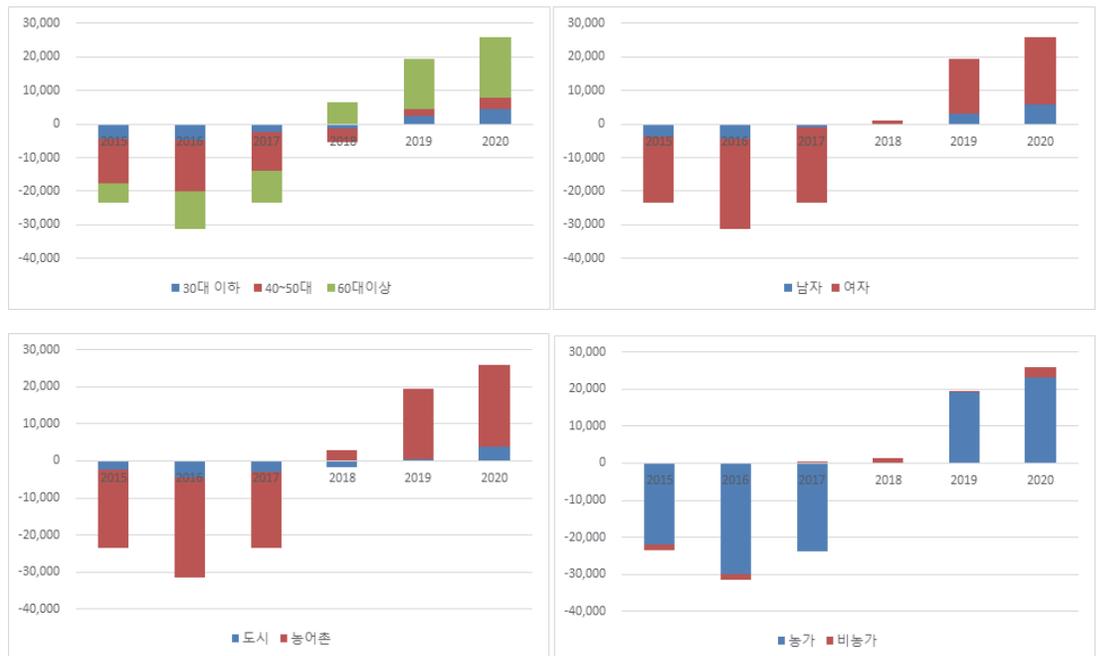
가족종사자가 중요한 농림어업 노동 공급처로 작용

- 농림어업 분야의 가족종사자 증가를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도시 실업의 도피자, 허드렛일만 하는 실질적 실업자 등), 가족종사자는 경영주의 배우자뿐 아니라 30대 이하의 농가 출신 미혼자녀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주당 36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었음(아래 박스 참조). 즉, 가족종사자는 농업경영체의 중요한 노동 공급처로 작용하고 있음.
- 가족종사자의 증가는 경영 여건 악화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 활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농업경영체 내부의 인력구조 개편을 통한 대응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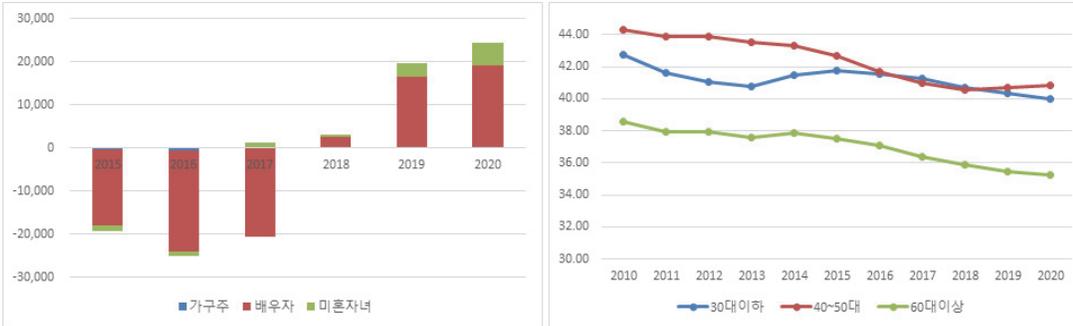
○ 경영주와 더불어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로는 60대가 가장 많고(최근 3년 평균 증가의 70.3% 차지), 30대 이하(17.3%), 40~50대(12.4%) 순이었음. 성별로는 여성이(최근 3년 평균 증가의 77.4%를 차지), 지역별로는 농어촌(85.1%), 가구형태로는 농가(89.8%)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농림어업 가족종사자 연령, 성, 지역, 가구형태별 전년 대비 변화:2010~2020년(3년 이동 평균)



○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는 배우자(최근 3년 평균 증가의 77.4%)와 미혼자녀(21.3%)가 차지하였고, 이들의 취업시간은 최근 3년 평균 37.4시간(30대 이하는 40.0시간, 30~40대는 40.9시간, 60대 이상은 35.2시간)으로 전체의 63.2%가 36시간 이상을 취업하고 있었음.

농림어업 가족종사자의 가구주와의 관계(전년 대비 변화) 및 주당 취업시간(평균)(3년 이동 평균)



04

향후 과제

비대면 산업으로서의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 주목

- 후기 산업사회 시대를 맞이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탈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도시로 부터의 농촌이주(urban to rural migration)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2010년을 전후하여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취업자가 증가한 분야가 농림어업 분야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농림어업 분야가 부각되고 있음. 향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농림어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들의 탈도시화 및 청년농 증가 사례

- 서구에서는 1960~70년부터 새로운 삶을 택하는 도시민들이 나타나면서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남. 산업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도시 중산층들이 대도시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문제의 발생을 경험한 후,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면서 탈도시화가 진행됨.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비대도시 지역 카운티(county)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인구 2천 명 미만 농촌 코뮌의 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 인구 증가가 나타남. 일본에서도 1990년대 들어 헤이세이(平成) 대불황에 의한 비농업 부문의 기업 도산·인력 구조 조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신규취농촉진사업의 강화,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전원회귀(田園回歸) 인구가 증가함(마상진 2019).
- 탈도시화와 더불어 주요국들에서 청년들의 농업종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EU 농가조사(2016)를 보면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35세 미만 청년농 비중이 2013년 대비 증가하였음. 미국 농업센서스(2007~2017)를 보면, 농가 중에 청년농(35세 미만)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2007년 5.4% → 2017년 6.0%)(임소영 외 2021).

농림어업 분야 청년 세대 증가 주목

- 연령세대별 전체 취업인구 중 농림어업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2020년 기준 1.1%(30대 이하 취업자 912.6만 명 중에 97.3만 명이 농림어업에 종사), 40~50대 3.1%, 60대 이상이 18.8%임. 그런데 세대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 30대 이하는 2016년 이후 농림어업 종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40~50대는 정체). 30대 이하 청년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비율은 2016년 0.7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0.94%, 2020년에는 1.07%에 이룸. 반면 60대 이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41.6%에서, 2010년 32.4%, 2015년 22.4%, 2020년 18.8%로 감소하였음<그림 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세대에서 고용 인력 또는 가족종사자 형태로 농림어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

<그림 12> 세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2005~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 세대의 농업 종사 요인을 보면, 타 세대에 비해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이 매년 조사하는 귀농·귀촌실태조사 자료의 최근 5년 귀농자의 귀농 이유를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환경적 요인이 큰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 발전 가능성을 봤다는 비율이 높았음(30대 이하 69.0%, 40대 62.1%, 50대 48.2%, 60대 이상 31.0%)<표 2>. 향후 청년 세대의 농림어업 취창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 최근 5년(2014~2018년) 귀농자의 귀농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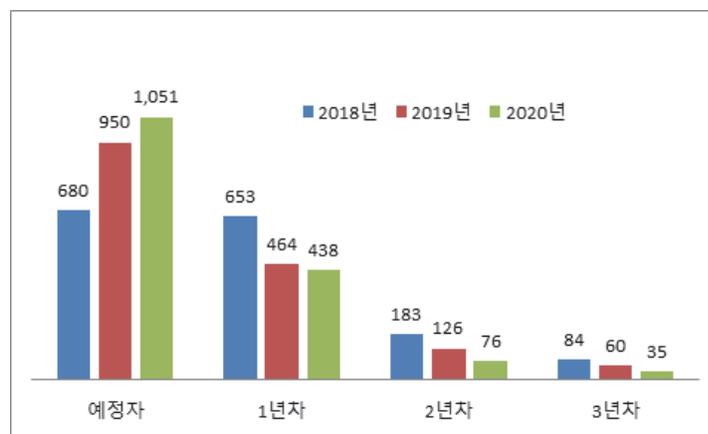
귀농 이유	연령대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연 환경	50.5%	58.2%	68.7%	77.6%	67.6%
농업 발전 가능성	69.0%	62.1%	48.2%	31.0%	47.7%
도시생활에 회의	35.7%	39.7%	42.9%	38.1%	40.0%
가족·친지와 살기 위해	29.3%	28.7%	27.6%	33.4%	29.8%
본인, 가족 건강	8.9%	18.8%	20.6%	30.1%	22.0%
비싼 도시생활비	22.1%	17.0%	18.5%	20.2%	19.1%
가업 승계	31.6%	20.3%	17.1%	14.6%	18.4%
실직이나 사업실패	10.0%	12.6%	11.4%	11.4%	11.5%
자녀교육	4.6%	5.7%	0.9%	0.4%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2019). 귀농귀촌실태조사.

일자리 정책이 취업기회 증가에 일정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활발한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경영주 육성을 위한 정책(귀농·귀촌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후계농 육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뿐 아니라 농업 분야 고용인력 채용을 위한 정책(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농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 2,681명이 신규로 유입되었음(3년간 전체 선정자 4,800명 중 1년차는 1,555명, 2년차 385명, 3년차 179명)<그림 13>.

<그림 13>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실적: 2018~202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내부자료.

- 향후 귀농 및 청년 창업농 지원, 후계자 없는 고령농 경영 기반의 사회적 승계 정책의 추진, 그리고 영농 기반이 없는 이들의 창농이 아닌 (법인) 취업 형태의 농업 분야 진출 관련 사업 활성화가 요구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농업 분야 내 다양한 일자리와 더불어 일거리 창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완주군은 2018년 607억 9,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 내 직접 고용규모도 350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마상진 외 2019), 새롭게 등장하는 농업 분야 비전형노동시장(전문 농작업단, 플랫폼 노동) 활성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농림어업 분야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도입과 같이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함.

참고문헌

- 김유배. 2006. 『노동경제학』. 박영사.
- 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19. 귀농귀촌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20. 신규 취농자 조사.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청년세대 농산어촌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 마상진. 2019. “농업인력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농업농촌의 길 2019』.
- 마상진·엄진영·김태후·박진우. 2019. 『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 및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마상진. 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2021 농업전망』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대희·김지운. 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전망.” 『KDI경제전망』(2017 하반기).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한국은행. 국민계정.

KREI 현안분석

감 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내 용 문 의	마상진 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81호

2020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3.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11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